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### 미 연준, 경기 회복세 둔화 타개책 검토

-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새로운 조치들을 고려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함.
  - 연준 위원들은 기준금리가 0에 가까운 상황에서 경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울질 하고 있으며, 금융위기 시 단행됐던 대규모 현금 지원에 대해서도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임.
  - 루이지애나 주 연준 위원인 제임스 볼라드(James Bullard)는 경제상황이 변화하면 경제정책도 이에 반응해야한다고 주장하고, 경기진작을 위해 할 수 있는 많은 대책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밝힘.
  
- 워싱턴 포스트는 연준의 발표문(policy statement)에 저금리 지속 가능성을 보다 강하게 명시하거나 재할인율 조정 또는 모기지 자산 매입을 단행하는 등 연준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예상함.
  - 현재 연준의 발표문은 이례적인 저금리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작성되어 있으나 여기에 구체적인 금리인상 조건을 명시하는 등의 방안이 있으며, 은행에 대한 재할인율을 인하하거나 모기지 금리 안정을 위해 모기지 자산 매입을 검토할 수도 있음.
  - 그러나 이러한 안들이 금리정책의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신용시장에 기술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.
  
- 또한 세 가지 방안들이 모두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준이 취했던 이례적이고 광범위한 경기부양 조치들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산매입을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함.
  - 연준은 금융위기 이후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국고채, 모기지 증권 및 기타 장기 자산을 매입한 바 있으며, 몇몇 경제학자들은 이와 유사한 새로운 자산매입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함.
  - 그러나 연준 관계자들은 이미 모기지 금리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자산매입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우며 오히려 민간부문의 역할을 저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.

(Washington Post, 7/8)